

건축기술부분을 퇴출시켜 건축설계사가 되어야 하나 Does the Design Field of Architecture Need to Expel the Technological Aspects?

김용철 / 반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ng-Cheol

2,000년 1월 14일에 있었던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 참석하여 오후 내내 발표내용을 들었다. 1차때와 마찬가지로, 'UIA표준권고안'에 따른다기보다는 UIA의 막후 실력자인 '미국'의 제도를 직수입해야한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50여개주의 광대한 미국의 건축관련 제도나 관습을 속속들이 아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다. 미국은 전세계가 시장이 되므로 특출한 영역의 전문가가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보다 훨씬 열려있다는 생각은 해봤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미국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반박할 수는 없었다.

이 '미국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주제발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부분인데, 특히 중국은 이미 5년전에, 그것도 WTO에도 가입하기 전에 '미국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 중국은 건축사시험도 영어로 보기로 결정했다고 전담하면서, 우리 한국건축계의 자성을 요구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질 정도였다. 더 이상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나 국수주의적인 발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역시 맞지 않았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도,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주장을 곁들이면, 세금이나 돈에 관한 경제통제만 빼고, 그 지역의 관습이나 문화, 종교는 인정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도 면제해 줄 정도이다.

어쨌든 필자는 이 '대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WTO의 표준권고안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 '건축사의 기본요건'을 재정립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건축사가 영업을 하는 방침'을 정하라는 것인데, 의외로 명확하다. 그것에 따라 건축교육과정을 만들라고 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상호인증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인들의 국제협약 해석방법과 대외관계 대처방법을 엿볼 수 있기도 하는데, 굴욕적인 일본과의 어협협상을 건축계가 비난하기가 낯뜨거울 정도이다.

하기야 '사형제도의 폐지'라는 의제의 국제회의에서도 찬반 어느 쪽에도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유 일하게 미국과 같이 슬그머니 반대표를 제출하는, 어떻게 보면 신중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쓸개 없는(뚜렷한 주장이 없는) 나라인 것이다. 그 외교관들의 자량은 찬반이 뚜렷한 외국인들에게서 득표작전의 대상으로, 극진히 대

접받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국내외의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사형제도에 대해 한국사회의 표준적인 철학을 정리하기에는 대법원장이라도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똑같은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 사회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와 관습을 달리해 와, 정서가 다른 이웃나라의 논리를 참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지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납득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UIA표준권고안을 충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논리적 배경을 정비하고, 우리 건축실정에 맞는 '비전'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청회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혹은 많은 의견이, 혹은 많은 난제가 예상되어도,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지 않는다.'로 답변되고, '이미 대세는 (미국의 의도대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뼈를 깎는 각오로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비장한 발표자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필자는 '손가락이 베이는 것'조차도 허망한 이유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는 기분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건축철학, 건축에 관련된 관습, 제도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가질 수는 없는가? 그것도 아주 쉽고 명확하게 말이다.

사실상 UIA표준권고안은 건축인이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물론 QBS부분은 너무나 지루하여 자세히 읽지는 못하였지만, 그저 그런, 좋은 방법들이 '이상'에 가깝게 서술되어 있을 것이라고 인정만 한다면, 시골뜨기 건축사의 눈, 특히 외국에서 공부한 안 해본 건축사임에도 '개인적 건축관'에 전혀 거슬림이 없는 내용들이었다.

UIA표준권고안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첫째, 건축사는 '건축사의 기본요건'이라는 항목에서 건축에 관한,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 거기에 미래에 나타날 것들에 대하여도 '건축사'는 통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기간이 대학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무리 우수한 교육을 시행하더라도,

'건축사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축주가 실제로 있고, 바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받는' 그런 설계를 해보지 않으면 건축 교육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UIA의 건축사 교육에 대한 기본 바탕이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실무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설계수업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추출하거나 훈련시키기 위해, '가상 건축주'는 돈을 무한정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견해를 존경하고, 구조의 대가, 시공의 달인, 설비의 석학, 설득이 가능한 공무원, 교통분석의 천재 등등이 건축사를 위해 아낌없는 봉사를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디자인 외에는 완전하게 가까운 설계환경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밀림과 같은 실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키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발표자는 인턴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수련생이 그 Project를 정말 참여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시작된 후에 참여했느냐, 끝나기 전에 사표냈느냐라는 성실한 기록 외에는 대안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요새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가 근무하는 동안의 소속회사 Project를 모두다 인정해주는 관행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점칠 수 있고, 설사 현재대로라도 어느 나라 사람이 비싼 변호사비 들이며 이것을 파 헤치겠는가?

셋째, 건물의 설계는 현지 건축사가 현지의 설계환경, 즉 법령, 환경, 사회, 문화 및 유산 등에 관한 것에 제일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건축사는 반드시 현지 건축사와 협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역주의에 대한 견해는 1999년 제20차 UIA 북경대회에서 중국측 부회장의 기조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건축사가 설계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국제적으로 설계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매(Procurement)라는 항목과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항목에서 다루지고 있다. 당연히 건축사의 윤리나 사회적인 사명감 등이 곁들여 거론되는데, 국제적으로 건축사들끼리 서로의 능력을 (발표자들의 견해는 '미국적인') 객관 속에서 검증, 비교하자는 것이다. 특히 친분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에서는 제도화하기가 골치아픈 '인터뷰-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두드러진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인증원'의 설립이나 그 업무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하는 발표자도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게 겁나는 존재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증원의 재정을 꾸러나가기 위해, 나중에는 인증대상자들에게 여

러 가지 편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쉽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청발주 설계'에 PQ(Pre-Qualification/사전심사제도)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방법이 우리 나라에서 선보인지 오래되었다. 이것이 바로 최종낙찰자를 뽑는 것도 아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5~7개 이상의 업체 중에서 15C4의 확률에 의한 제비뽑기나 다시 현상설계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그 기준이 승복할 수 없는 항목에서도 0.01까지 점수화되고, 탁상행정의 시행착오를 개선하려는 노력인지 누군가의 로비에 의해서인지, 수시로 바뀌는 PQ기준에도 꽤나 익숙해져 있다. 아무리 미국에서 건너왔다지만, 이 QBS에 대한 대처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단지 한국식으로 운영하다가 국제재판에 고소를 당하는 발주관청이 생겨나,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경우는 왕왕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설계사무소 역시, 변호사비용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며, 모든 것을 감수할 정도로, 설계용역비는 그렇게까지 투쟁대상이 아니다.

이 '미국식 객관'이라는 것은 자기나라나, 자기네 동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익명성의 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얼굴도 모르고 속마음도 모르는 전문가에게 맡길 때의 Client가 갖는 속성, 그 대상이 의사이건, 변호사이건, 회계사이건,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첫대면' 마저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사 역시 외국인일 때, Stranger로서의 거부감을 이미 UIA는 간파한 것이다. 당연히 QBS를 다룬 내용은 UIA표준권고안에서 1/4정도씩이나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애매하고 지루하게 서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논의로 각 나라의 건축사협회는 시간을 벌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직업윤리나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하고, 설계는 가격입찰이 아니라 가능한 요율체계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꼭 UIA가 아니라도 너무나 당연한 권고사항이다.

최근에 한국은 저렴하고 질 좋은 설계를 찾아야 한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건축사보수요율 규정이 없어진 것을 UIA는 모를 것이다.

구매와 QBS항목, 그 이면에서 '민간발주 건축설계'는 UIA표준권고안에서 그렇게 관심끄는 대상이 아니다. UIA 표준권고안이 관심끄는 대상은 '관청발주 설계'이다.

이 '관청발주'는 어느 나라에서든 '국민의 혈세'라고 좋은 명분을 가지지만, '주인 없는 건축물'이고, 대형 Project이므로 설계용역비 역시 엄청나지만 눈먼돈이고, 현금거래인 탓으로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아닌 모든 경제인이 눈독 들이는 사업이다. 미국 건축사들 역시 전세계의 '관청발주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WTO 개방합의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모든 건축계, 특히 후진국가들이 걱정인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상호인증이라 하지만, 후진국가가 선진국가의 시장을 노리려는 것은 과대망상증 환자일 것이다. 가끔 일간지 1면에 크게 보도되며, 순진한 온 국민을 (자신들한테는 전혀 돈이 안되는데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이랄까, 최근의 한국건축계는 일부 대형회사를 제외하고는 PQ니 현상설계니 하는 '관청발주'에 냉담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PQ는 쓸데없는 것까지 규정되어 있어서, 점수관리를 위해 필요 이상의 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현상설계'는 사무소가 거덜이 날 정도의 자금을 들인 '컴퓨터 그래픽 외주'를 통해 Presentation을 해보아도 인생곡절은 점쟁이밖에 모를 지경이다. 어느 누가 '개 널'을 뛰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서술한 네 가지의 요소 중에서 두 번째의 인턴과정문제, 세 번째의 현지건축사 협업 문제, 네 번째의 관청발주의 설계문제는 그럭저럭,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거나, 준비 없는 만큼만 피해를 보는 정도로 해결될 것이다.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의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대한 한국건축계의 왜곡된 인식(필자 생각과 다르다는 의미뿐임)에서 출발하여, 발빠르게 진행되는 건축(설계)학과와 건축공학(기술학)과의 분리이다. 이것은 공청회 발표문의 '중요한 화두'이다.

건축사요건 (Fundamental Requirements of an architect)은 UIA표준권고안에 너무나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원본을 그대로 옮긴다. (번역은 建築家誌 참조)

*Ability to create architectural designs that satisfy both aesthetic and technical requirements and which aim to b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심미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내구성 있는
건물의 설계능력)

* Adequate knowledge of the history
and theori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arts,
technologies, and human sciences:

(건축역사, 관련예술, 관련기술, 인문과학에
대한 적절한 지식)

* Knowledge of the fine arts as an
influence on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design:

(건축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술에 관한
지식)

* Adequate knowledge of urban
design, planning, and the skills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도시의 설계, 계획, 그 과정의 관련기술에
관한 적절한 지식)

*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buildings and between
buildings and their environments, and of the need
to relate buildings and the spaces between them to
human needs and scale:

(사람, 건물, 환경을 인간중심으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

* An adequate knowledge of the
means of achiev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sign: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물설계에 필요
한 수단에 대한 적절한 지식)

*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 of
architecture and the role of architects in society, in
particular in preparing briefs that account for social
factors:

(건축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
해)

* Understanding of the methods of
investigation and preparation of the brief for a
design project:

(설계진행을 위한 조사방법과 개요서 작성
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desig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problems

associated with building design:

(구조설계, 시공, 토목에 대한 이해)

* Adequate knowledge of physical
problems and technologies and of the function of
buildings so as to provide them with internal
conditions of comfort and protection against
climate:

(외부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쾌적한 건물설
계를 위한 물리적 문제, 그에 대한 기술, 기능에 대한 이해)

* Necessary design skills to meet
building users' requirements within the constraints
imposed by cost factors and building regulations:

(원가요인과 법규제약내에서 사용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설계기술)

* Adequate knowledge of the
industries, organizations,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volved in translating design concepts
into buildings and integrating plans into overall
planning:

(설계개념을 설계나 건물로 구현하는데 관
련된 산업, 단체, 규정, 절차에 관한 적절한 지식)

* Adequate knowledge of project
financing, project management and cost control.

(설계건물에 관련된 금융, 공사관리, 원가관
리에 대한 적절한 지식)

이상의 것들이 이어지는 교육부에서 건축
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침이 되는 것이다. UIA 표준권
고안에는 그 이상의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서술로 충분하다. 앞으로도 더 이상 세부
적인 기준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의 공청회에서는 '교묘' 하기도
건축기술을 퇴출시키려는 명분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식으
로 가미하였다.

"건축물의 구조, 환경조절, 시공에 관련된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다. 이 내용은 UIA권고안 어느 곳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라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어떻든 건축인의 입장에서 건축학과와 건축

기술학과의 분리에 대해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1. 건축은 기능, 구조, 미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정의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건물완공시 건축기술(공학)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 감사(感謝)패를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감사패의 내용은 건물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설모(기능)에서부터 전기조명, 기계실, 화장실의 성능까지를 통틀은 것으로서, 비가 많이 오거나, 덥거나, 춥더라도 성능을 발휘해 줄 것이라 믿을 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축주에게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도록 설계도면 뿐만 아니라, 공사지침서까지 잘 작성해 주었다는 표시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준공식이 끝나고 2, 3년후에 건축주로부터 “자네가 설계한 건물이 살아보니 참 좋더라”라고 칭찬을 받는 건축사가 몇이나 될까?

방수가 안되고, 난방비가 옆집보다 많이 들고, 화장실은 오줌냄새가 떠나지 않고, 배관이 터지고, 유리창은 열 수가 없어서 담배 찌든 냄새가 진동하는데 누가 칭찬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떤가?

건축의 단계는 기획, 건축계획,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나뉘어 있다. 건축사의 역할에서, 기획은 건축주나 발주공무원에게, 시공, 감리, 유지관리가 소위 건축기술자에게 뺏기거나 양보되었다해도, 건축계획 및 실시설계에서는 당연히 건축기술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했을 것이다.

또 법적으로도 건축설계도면은 공사를 위한 최초이자 최후의 지침서이다. 건축사의 고유업무였던 ‘감리’가 설계에서 분리된 한국적 실정에서 (잠깐 실수로, 설계의도와 달리 작성됐다 하더라도)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감시하는 것이 현행법이 정한 감리자의 궁극적인 의무인 것이다.

건축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건축기술 능력이 많은 도면을 채울 것이다. 이 작업 역시 건축사의 책임 하에 많은 건축사 지망생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건축설계가 건축계획, 혹은 건축디자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이 아니라 구조, 시공 설비 등, 건축기술적인 업무들이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종이라는 것이 타 직업,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설계사무소 운영상, 각 분야를 독립시켜 별도 외주(Out Sourcing)를 주게 된 것이 불과 20년전 일이다.

2.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미국에 비해 결정적으로 약하고 두루뭉실한 부분이 ‘공사계약을 위한 각종시방서, 견적서 등의 도면에 따른 각종지침서’이다. 이 작업 역시 건축사 책임아래 작성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건축인들마저도 인문학적인 계약관리만 공부시키면 된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건축 기술적인 지식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UIA 표준권고안에 따른 건축계 개혁에서, 크게는 WTO 국제개방시대를 맞아, 국제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가장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한약사협회의 논쟁은 국민보건이라는 미명하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취지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제도에서 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의과대학이 있을 때부터 약학과의 생겨나서 수많은 의사와 약사를 배출하였다.

한의학과가 추가되면서, 같은 국민건강시장에 한의사가 뛰어 들었고, 여기에 불과 3~4년전에 생긴 한약학과의 탄생하면서, 각각의 졸업생들로 구성된 협회를 통한 투쟁은 원래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려진 채, 복잡한 의료법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IMF이후로 새삼스레 세간에 회자되는 ‘적자생존법칙’은 그 경쟁방법이 합리적일 때 정당한 사회로 칭송 받지만, 우리 한국사회는 쉽게 그 속에 들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는 승자와 패자의 비용을 합한 것이 ‘사회의 이익금’이라는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지금 건축계의 ‘대세’ 대로 건축학과와 건축기술학과로 분리되고 분업화되면,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용 40%는 구조기술사, 전기설비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술사, 그 외에도 출현이 예상되는 시공설계기술사, 계약도서 작성기술사에게 외주발주가 아닌 별도계약에 의해 진행될 것을 강요당할 것이다. 이미 감리부분 35%는 포기한 상태에서의 계산이다. 이런 도전에 대해, ‘교육내용’으로 대처하는 논리적 근거가 워낙 미미하여 ‘외국은 이르지 않는데’라는 사례만으로 방어해야 할 것이다. -미국? 그들은 전세계가 시장이므로 극히 좁은 전공도 월등하기만 하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

공장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주도해야 되지 않은가. 강남의 빌딩숲속에 자리잡은 나대지 300평에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시공기술사가 설계를 주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공중화장실, 각종 설비장비로 구성된 병원설계는 설비기술사가 주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4. 건축물 설계는 그 종류가 무엇이 되든, 설득과 투쟁을 통해 건축사들의 몫으로 남는다해도, 건축법 제59조 2항의 관계전문기술사와의 협력조항은 대폭 확대되게 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는 16층이상, 기둥간격 30m이상 건물, 혹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설계는 구조기술사와 협력하게 되어있고, 규모나 용도에 따라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설비기술사들의 협력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 법조항에 관계없이, 전문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명시적이기는 하겠지만, 이 기준 이하의 모든 건축물이 관계전문 '기술사' 까지는 아닐지라도, 건축기술 관계전문, '기사1, 2급' 의 협력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범위가 확대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다. 조경기술사, 도시계획 혹은 교통기술사의 협력 의무화가 명시되면서 그 범위가 점점더 확대될 것이다.

건축법 제32조에 명시된 대지 안의 조경계획 역시, 조경기술사의 협력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고, 피난계단의 위치선정이나 방염마감재, 내화구조체 선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역시 소방관계 전공인들에게 협력 받도록 명시될 것이고, 결국에는 실시설계나, 시공을 위한 도면작성시 시공가능성이나 경제성, 기술적인 것, 국내제작 가능성 등에 대해 시공관련 전공인이나 시공기술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할 명쾌한 논리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 조금만 더 고생해서, 대학생활에서 영역을 넓혀 공부했으면 되는 그런 분야와 지식일 것이다. 협력비용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그 비용에 맞게 제대로 협력을 받고 있느냐로 회의에 빠질 것이다.

많은 부분은 너무 쉬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일반인은 30평까지도 스스로 자기 집의 건축관련 전 분야를 설계하고 지을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은 아량이 넓지 않은가. 최근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유로, 서민을 위한다며 일반인이 설계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건축신고 범위' 를 50㎡에서 100㎡로 넓힌 바 있다.

아주 비근한 예로, 현재 교통영향평가 영역이 있다. 건축계획속에 들어온 교통체계의 계획요소는 불과 몇 항목밖에 안된다. 완화차선, 가각정리, 보행자 안전도로, 적당한 주차장 화물차, 버스의 정류장 등이다. 그러나 심의 통과를 위한 영역비는 평당 만원이상 최소 3천만원 이상이다. 구조계산 설비 등의 설계비가 평당 5천원 전후인 것에 비해, 업무량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것이다.

용역내용 및 창의성부분에 대한 비용은 필자 같으면 전혀 쳐주고 싶지 않는데, 그쪽은 사무실을 운영하랴, 일이 없을 때도 직원월급주라, 로비 하랴,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다 교통계획과를 대학에 설립하면서 생긴 문제인 것이다. 그 비용은 모두다 최종소비자인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건축학과 출신의 건축사는 제3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축관련 '기술' 능력을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디자인 능력에 대한 인정여부만을, 그것도 발주자가 달라질 때마다 기다려야 될 것이다. 어쩌면 다행히도, 이런 속성 때문에 설계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현지건축사도 외국건축사와 충분히 비교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적 바탕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오히려 건축관련 '기술' 능력에서 현지건축사의 부족함이 명백하게 노출되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역설적 결과가 나올 지 모른다.

요새는 디자인도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에게 많은 비용을 들이며, 많은 역할을 이전하고 있지 않은가. 건축사(Architect)가 아닌 건축설계사나 건축의장사(Architectural Designer)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아니, 예측해보건데, 미래에는(우리의 후배들 시대이겠지만) 건축주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프리랜서' 를 찾으면 될 것이다. 건축주가 보기에는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을 것이고, 외국 어디에선가 본듯한 건물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사회가 디자인 값(공짜)서비스로 보아 높게 쳐주지도 않을 것이고, 건축사는 예술을 한답시고 공사비 개념에 일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좋은 디자인이 건설비 증가요인이라는 사실로 오도되어 일반인이 기피하게 되면, 건축사는 사람들의, 특히 건물주인들의 예술적 안목과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만 타령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5. 이러한 것들이 우려한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해도, 설계사무소내에서 건축사 지망생들의 건축 기술'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디자인을 제외한 관련 작업을 소홀히 할 것이어서 책임자인 건축사는 혼자 건축관련 벌칙에 대응하느라 머리가 쉴 것이다. 더구나 디자인은 A안, B안, C안을 섞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많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많은 건축사 지망생들의 수고가 한사람만 제외하고 헛일이 될 것이니, 이렇게 낭비적인 사무소 운영비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디자인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덧붙여서 건축사가 건축설계사무소를 이끌 어가려면 건축학과 출신(건축사지망생들)만이 아니라 건축 기술학과 출신(구조기술사지망생, 시공기술사지망생, 설비 기술사지망생, 도시계획기술사지망생, 조경기술사지망생, 교통기술사지망생 등)들도 필요할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될 것인가. 월급을 대기업 수준이상 준대해도 '쫄쫄한 건축사'가 운영하는 직장의 미래에 어떻게 인생을 걸겠는가.

더구나 의사나 변호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협동작업이 절대적인 건축설계작업에서 건축디자인이나 설계의 속성을 모르는 교통기술사, 구조기술사, 설비관계기술사 혹은 그 지망생들과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한 일이라는 것을, 거꾸로 건축관련 '기술'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디자인'을 무기로 칼만 휘둘러려는 건축사 혹은 지망생과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얼마나 서럽게 업무를 봐야 할 것인가. 역시 건축설계일을 열심히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내용이다.

또 건축을 모르는 도시계획가나, 건축설계를 해보지 않는 '소신 있는 행정가'의 횡포에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짐작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역할이나 분야에 소속이 되어있건,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들은 물론 건축관련 기술자, 기술직 행정가도 '건축설계'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정말 건축설계사(Architectural Designer)가 아닌 Architect(건축사)의 진정한 역할을 생각해 하는 시점이다.

6. 게다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들의 건설을 토대로, 대형건설회사의 전략은 CM활성화가 아닌

가. 이것이 시대적으로는 총체적 부실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면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중이다.

Construction Management라 부르는 이 용어는, 말 그대로 '공사관리'이지만 적절한 공사관리를 위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사업수익성까지 모두 다뤄야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Engineering & Construction란 개념에서 출발하여 건축시공계의 '케치프 레이즈'가 되고 있다. 이 CM은 미국에서 중동 붐과 함께, 돈밖에 없는 나라를 상대로 활성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것이 건축사들에게는 'Architect의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발주공사'는 앞으로 이 CM에 애착을 가질 것이다. 열심히 하든 안하든 급여가 일정한 공무원들에게 산더미 같은 책임에서 많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발주공사, 그에 따른 설계야말로 미국이 UIA표준권고안을 앞세워 노리고 있는 최종 목표일뿐 만 아니라, 국내의 대형건설회사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 하고라도, 이미 PQ를 다지면서 노리는 중요한 생존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정부발주가 없으면 그 시장은 너무나 좁은 것이다.

왜. 우리 건축사만 영역을 줄여 버리려고 안달인가. 아무리 원하는 전공이지만, 하기 싫은 공부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7.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면 모두 필자를 비웃겠지만, 지금까지 건축학도가 의과대학에 맞먹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그것은 '건축사'라는 독립 전공인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적성을 건축기술쪽으로 바꿨을 때, 역시 우수한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도시계획가가 배출됐던 것이다. 만약에 건축공학(기술학)과를 독립시키면, 다시 건축구조학과, 건축시공학과, 건축전기설비학과, 건축설비학과 등으로 세분될 것이다. 이것들은 근대사회에서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출신 엔지니어들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건축설계시장에서 헤매는 '쫄쫄한 건축사'를 평생 뒷바라지하라고, 자기 자식을 거기에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현재의 대학입시에서, 전공은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선택하게 해줄 것이고, 대학교 주인이 걱정하는 학과정원도 그럭저럭 채워질 것이다. 졸업 후 그들은 생존을 위해 뭉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좁디좁은

한국의 설계시장은 수없이 많은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만든 단체들에 의해 잘게잘게 쪼개질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가 있겠는가. 굵어죽게 되었는데.’

이미 필자는 이 글에 앞서, ‘교육, 반란이 필요할 때다’ 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렇게 건축계가 건축기술을 퇴출시키려는데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의 근저에는 전공 교육에 대한 한국의 ‘교육정책 미비’에 있는 것이다.

건축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할 시간은 지난 10년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사교육을 통해 가계비를 낭비하면서도, 국, 영, 수로 대표되는 (‘국어, 한문, 영어, 수학, 일반사회, 국사, 세계사, 윤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련, 제2외국어인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보통교육과정은 학생과 부모님들을 대학입시로 매진하게 하고, 대학은 또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거나, ‘모집단위 광역화’ 라느니 하면서 엄청난 비용만 요구하고는 정작 전공 공부 시간은 대학 4년중 2년을 채우기가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다.

모자란 전공공부는 노후도 불안한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학원이나, 유학을 통해 교육기간을 연장해서 머리가 다 하얗게 될때 짬에 비로소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건축계가 이것저것 다 빼고, 건축계획~디자인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지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1년이 늘어나, 건축교육 5년이 된다해도 건축사 교육을 낙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설계분야 이수학점이 늘어난다 해도 그 평가는 Total Design(건축관련 기술을 망라한 Design)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과거를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자.

공부가 전부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춘기, 고등학교 3년기간 동안에 미적분까지 풀었던 수학공부의 50%를 ‘구조역학’ 공부에 매진했다더라면, ‘역사란 무엇인가.’ 까지 독파했던 영어공부의 30%를 그것보다 훨씬 쉬운 영어로 된, ‘건축이론 독해’에 할애했다더라면, 전자장이론까지 파고들었던 물리공부의 20%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부에, 화학공부시간의 일부를 ‘건축재료학’에, 국사나 세계

사공부시간의 일부를 ‘한국고건축이나 서양건축사’ 공부에, 지리공부시간의 일부를 ‘도시계획’ 공부에, 사회공부시간의 일부를 ‘건축관련법규’에, 지구과학공부시간의 일부를 ‘토목학공부’에 달달 외우고, 반복하고, 요점정리하고, 문제 풀고 하는 정성과 노력에 쏟아 넣었다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였다면 아마 이런 불평들을 털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한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대학당국의 교육정책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을 끌고가게, 옆에서 충고해주는 많은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기술학)과의 분리!” 이 화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체화되고, 특히 대학건축계에서도 반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필자와 가까운 모든 건축인들도 이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서, 필자를 고독 속으로 몰아 넣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업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번 떠난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